

# KIA “가문의 부활 보라”



〈한기주〉

## 8일부터 한화와 준PO 3전2선승제 ‘호랑이’ 특유의 집중력 회복 기대

KIA는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가슴을 졸이다가 막판 2연승을 거두며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KIA는 지난 시즌 끝까지 불명예를 탈고 올리는 ‘야구 명가의 부활’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뜨겁다.

### KIA-한화 올시즌 팀 전력

0.255	타율	0.254
3.33	방어율	3.37
476	득점	507
792	안타	650
191	2루타	191
22	3루타	3
62	홈런	108
93	도루	65
390	볼넷	438
0.356	장타율	0.380
0.325	출루율	0.332

(3일 현재)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한화가 KIA보다 우세하다는 편이지만 단기전 결과는 선불리 예측할 수 없다.

단기전 승부의 최대 변수인 ‘원투 펀치’를 따지면 한화 류현진과 문동환이 KIA의 김진우와 세스 그레이싱어보다 우세하다.

류현진은 올 시즌 6월 23일 KIA를 한 차례 상대해 8.2이닝을 7피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문동환은 정규시즌에서 6차례 KIA전에 등판해 무려 5승을 챙겼다. 평균자책점은 1.67로 KIA를

러로 통하고 있다. 반면 KIA ‘특급 에이스’ 그레이싱어는 한화에 유독 약하다. 3경기에 나와 1승2패(방어율 4.76)

로 다른 팀들에 발휘한 성적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여기에 최근 어깨 통증을 호소, MRI 촬영 등 어깨를 정밀 진

단한 결과 염증이 발견돼 선발 출장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김진우도 5차례 한화전에서 2승(1패), 방어율 1.72로 선전했지만 최근

컨디션 난조에 빠져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처지다.

KIA는 결국 선발진 보다는 신용운-한기주-윤석민으로 이어지는 특급

불펜진에 승부를 걸 수 밖에 없다.

호랑이와 독수리의 대결은 승패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10억 신인 한기

주와 입단 하자마자 한화 마운드의 핵으로 자리잡은 류현진의 맞대결도



〈이용규〉

관심거리다.

류현진은 일단 1차전 선발투수로 일찌감치 낙점받았고, 한기주도 롱볼 리프 투수로 기용이 예상되는 만큼 1차전에서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마운드가 약한 KIA로서 그나마 타선에서 다소 앞선다는 게 위안이다.

KIA는 한화와의 맞대결 타율서 0.252를 기록한 반면 한화는 0.241에 그

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화 장타력만 피하면 승산있다”

### ■ KIA 서정환 감독 인터뷰

“준플레이오프도 자신있다”

두산과 치열한 4위 전쟁에서 승리한 서정환(51) KIA 감독이 “1차 목표는 이렇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준플레이오프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 감독은 “팀이 지난해 끝까지 해 선수들이 패배 의식에 젖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해냈다”면서 “이같은 상승세라면 준플레이오프를 넘어, 한국시리즈 진출도 가능할 듯 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 감독은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 전략에 대해서는 “올 시즌 상대 전적서 다소 약했던 게 사실이지만, 단기전과 페넌트 레이스는 다르다”면서 “한화의 장타력만 주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휘봉을 잡은 첫해 팀을 포스트시즌에 끌어올린 서 감독은 삼성감독시절인 98년~99년까지 포

합하면 3번째 포스트시즌행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포스트시즌 진출 소감은.

▲ 시즌 내내 투수는 물론 타선에서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며 고전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게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 막판 수차례 맞은 위기를 잘 넘겼다는 점에서 가장 기쁘다.

-올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선수를 꼽는다면.

▲ 타선에선 이용규가 선두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줬고, 마운드는 후반들어 한기주가 불펜으로 전환한 게 효과적이었다.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에 대한 각오는.

▲우리는 시즌막판 두산과의 4위 경쟁을 하면서 준플레이오프 못지 않은 경기를 경험했다. 매년 피할리는 승부를 해왔다. 객관적으로 열세다. 그러나 한번 해볼만하다.투수운용은 페넌트 레이스와 비슷하게 운용하겠다.

-그레이싱어의 출전여부는.

▲최근 MRI 촬영을 했는데 큰 이상은 없지만 염증이 발견됐다.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등판은 미지수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삼비노 저주’ 내가 풀겠다

최경주 클라이슬러클래스 출전

50년 만에 2회 연속 우승 도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미국프로 골프(PGA)투어 6연승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도 50년 묵은 기록에 도전장을 던졌다.

5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포리스트오크스골프장(파72·7천311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클라이슬러클래스는 50년 동안 2회 연속 우승한 선수가 나오지 않은 대회이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1라운드부터 내내 선두를 내달린 끝에 우승을 차지했던 최경주는 ‘삼비노의 저주’를 풀어내겠다는 다짐이다.

‘삼비노’는 이 대회에 마지막으로 2연패를 달성한 샘 스니드의 별명.

스니드가 1955년, 1956년 잇따라 우승한 이후 50년 동안 어떤 선수도 타이틀 방어에 해내지 못하자 이런 징크스가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도 최경주의 성공적인 타이틀 방어에 이휘질 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최경주는 작년 이 대회에서 티샷, 아이언샷, 퍼팅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무려 26개의 버디를 쓸어들고 보기는 단 4개에 그치는 환상의 플레이를 펼쳤다.

코스가 최경주에게 ‘맞춤형’이라는 말도 들었다.

올해 역시 최경주는 고치고 있는 스윙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마침 이 대회를 맞았기에 50년 묵은 ‘삼비노의 저주’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美유학생 제다나

### 美대학 골프 2위



미국 유학생 제다나(22·사진)가 미국대학 골프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오하이오주립대에 재학중인 제다나는 2일(한국시간) 미시간주 앤 아버의 U-M골프장

에서 열린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올버린인비테이셔널 마지막 날 경기에서 브리애나 브로데리(미시간대)과 연장 세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해 2위에 머물렀다. 제다나의 선전으로 오하이오대는 단체전에서 미시간대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키 172cm, 체중 60kg의 제다나는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리 260야드의 장타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 세리컵주니어대회와 한국주니어선수권대회 등을 석권, 주니어 1인자 자리에 오른 뒤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오하이오대 3학년이 재학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원섭 ‘9월 MVP’

KIA 외야수 김원섭(28)이 구단 지정병원이 ‘밝은안과21(원장 김재봉·원족)’이 후원하고 광주지역 프로야구 출신기자단이 선정하는 9월 월간 MVP에 뽑혔다.

김원섭은 9월 한달동안 78타수 23안타, 6도루, 타율 0.295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에 서 팀 승리를 견인했다. 한편 김원섭은 상금 100만원 중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50만원을 내놓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혜림 사브르 ‘동’

세계펜싱선수권 여자 개인전

김혜림(21·경북체육회)이 2006 토리노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내 한국의 메달행진을 이어나갔다.

세계랭킹 13위인 김혜림은 2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벌어진 8강전에서 페루스 레오노르(프랑스)를 15-13으로 꺾고 4강에 올라 레베카 워드(미국)에게 14-15로 졌지만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혜림을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소녀 검객’ 워드(16,세계랭킹 2위)는 결승에서 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리엘 자구니스(미국)를 15-11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김혜림은 작년 라이프치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8위에 그쳤지만 올 6월 쿠바에서 열린 월드컵 A급대회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하는 경사를 누렸다. 남자 에페 개인전에는 김승구(25,화성시청) 등이 출장했지만 64강이 대결하는 1회전 문턱을 모두 넘지 못했다.

▶2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2006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김혜림(왼쪽)이 미국의 레베카 워드를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